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2호, 2024. Vol.9 No.3

시각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그림책 시퀀스 의미 연구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중심으로

Study on the Meaning of Picture Book Sequence through Visual Component Analysis

Focus on the Bologna Ragazzi Award Winning works

주 저 자 : 조은미 (Cho, Eun Mi)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융합 전공

교 신 저 자 : 엄기준 (Um, K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gijunum@daum.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4.3.408

접수일 2024. 08. 27. / 심사완료일 2024. 08. 29. / 게재확정일 2024. 09. 09. / 게재일 2024. 09. 30.

Abstract

The "Study on the Meaning of Picture Book Sequence Through Visual Component Analysis" is a book that won the La Value Award at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and it analyzes a total of 906 books in the 1966-2020s by year to examine the visual components of how a picture book leads the reader from beginning to end in a certain space and analyze the meaning. In particular, we classified 30 Korean picture books that have won awards since the 2000s by genre and analyzed in-depth whether the visual components are developing the previous page and the next page in a sequence struc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mage expression method was delivered in the most stable visual language, with figurative painting and color being black and difficult, and typography being Serif (light form).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ing of the artist's communication toward the reader, such as dreams, hopes, challenges, and courage, to me, family, friends, and the world, does not change even if generations change rapidly. Although a lot of information is pouring out in the digital ag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for effective delivery, we will be able to find materials that can move people and sequence me, the world, generations, and generations in visual language.

Keyword

Picture book(그림책), Sequence(스퀀스), Visual componentr(시각 구성요소), Bologna Ragazzi(볼로냐 라가치상)

요약

'시각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그림책 시퀀스 의미 연구'는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한 도서들로 1966년~2020년대 총 906권을 연도별로 분석해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시각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의미를 분석함에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수상한 우리나라 그림책 30편을 장르별로 분류하고 시각 구성요소가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시퀀스 구조로 전개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미지 표현 방식은 구상화와 컬러는 검정과 난색, 타이포그래피는 Serif(명조체)로 가장 안정적인 시각적 언어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와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을 향해 꿈, 희망, 도전, 용기 등 독자를 향해 작가가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대가 급격히 변한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나와 세상, 세대와 세대를 시각적 언어로 시퀀스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그림책의 역사
2-2. 그림책 시퀀스
2-3. 선행연구 분석

3. 그림책 표지 시각 구성요소

3-1. 연대별 시각 구성요소 분석
3-2. 국내 그림책 시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의미 분석
3-3. 연대별 시각 구성요소 분석 소결
3-4. 국내 그림책 시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의미 분석 소결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책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넘어 인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그 중 그림책은 영유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책으로 그림을 통해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림책은 단순히 종이책의 전자책 전환을 넘어, 콘텐츠, 단말기,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네트워크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의 시선을 이끄는 시각 구성요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림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페이지 터너의 역할로 그림책의 시퀀스 전개를 끌고 가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사례로 볼로냐아동도서전 라가치상(La fiera del libro per ragazzi)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는데 라가치상은 1966년부터 매년 3~4월경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아동도서전에 출품된 도서 중 가장 우수한 도서에 수여되는 상이다. 상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픽션(Fiction), 논픽션(Nonfiction), 오페라 프리마(Opera Prima), 코믹스(Comics), 유아(Toddler), 뉴 호라이즌(New Horizons) 부문이 있다. 픽션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주요 요소인 이야기책이 대상이다. 논픽션은 과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적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오페라 프리마은 신인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데뷔작을 대상으로 한다. 코믹스은 연령대별로 Early Reader(6~9세), Middle Grade(9~12세), Young Adult (13세 이상)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된다. 뉴 호라이즌은 주로 신진 작가거나 새로운 시도 작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특별 카테고리를 설정해 출판사들이 특정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시도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특별 주제로는 2015년 환경, 2016년 미래, 2017년 지속 가능성, 2018년 평화, 2019년 인공지능, 2020년 팬데믹, 2021년 디지털, 2022년 기후, 2023년 사진, 2024년 바다 등이 선정되어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도서전에 참가해 꾸준하게 상을 받아오고 있다.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은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를 출품하고 그중 최고의 도서를 선정하는 상이라 이번 논문 사례 도서의 선정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1] 906권 표지를 연대별로 3-1에서 시각 구성요소인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로 나누어 시각 구성요소를 전반적 분석했다. 3-3에서는 우리나라 수상작 중심으로 픽션 11권, 논픽션 8권, 오페라 프리마 5권, 뉴 호라이즌 6권 수상작 총 30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각 구성요소가 그림책의 시퀀스 전개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분석했다.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출판물을 분석해 봄으로써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 구성요소가 독자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양질의 그림책을 기획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림책의 역사

그림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한 사례는 고대문명 동굴벽화, 특히 쇼베 퐁 드 악(Chauvet Pont de Arc) 동굴 암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이집트 파피루스 두루마리에서는 그림이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로 사용되었고, 1세기경에는 코덱스(CODEX)가 발명되어, 이를 통해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한 그림책의 기원이 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주로 성경의 내용을 담은 그림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림과 글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의 책이 등장하면서 현대 그림책의 기초가 되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활자와 그림이 함께 인쇄된 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올리히 보너(Ulrich Boner)의 『보석(Der Edelstein)』(1461)은 활자와 그림이 함께 인쇄된 최초의 그림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후 1658년에 출판된 코메니우스(Comenius)의 『그림의 세계(Orbis Sensualium Pictus)』는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다. 19세기 말, 랜돌프

1) www.bibliotecasalaborsa.it

칼데콧(Randolph Caldecott)의 『The House that Jack Built』(1878)이 등장하면서, 그림이 단순한 삽화의 기능을 넘어 글의 의미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 그림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림책이 다양한 미디어, 기법, 스타일로 더욱 발전했으며, 이제는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그림책은 칼데콧 상과 볼로냐 라가치상과 같은 권위 있는 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2. 그림책 시퀀스

시퀀스(Sequence)란 사전적 의미로 연속적인 사건, 즉 그림책 시퀀스는 펼쳐 보이는 일련의 이미지 앞, 뒷면들이 서로 연관되어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서로 관련된 구조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그림책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각 구성요소 중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등은 시퀀스 구조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림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연결 페이지 터너[3]의 기능으로써 통일성과 반복, 다양성과 대비로 시퀀스 구조 전개를 끌고가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한다.[4]

2-3. 선행연구 분석

그림책의 시퀀스를 분석하기 전에 시각 구성요소가 표지에서부터 독자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정열, 최인영의 「그림책 표지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는 2017~2018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표지디자인의 시각 구성요소를 논했으며 본 연구에 연도별 표지 시각 구성요소의 기초적 분석 가이드로 설정했다.

그림책의 시퀀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은영의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한 시퀀스 분석」이 있다. 이 연구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 일러스트레이션의 시퀀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같음을 확인했고. 여기에 색채,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가 통일성과 반복, 다양성과 대비의 부분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페이지 터너로서의 시각 구성요소를 찾아보았다. 박혜원의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의미패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장소설 표지를 연대별로 의미를 분석했는데 책표지에서 시각 구성요소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선행연구들은 일부 도서를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본 연구는 1966~2024년까지의 전 세계의 그림책 906권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이다.

3. 그림책 표지의 시각 구성요소

3-1. 연대별 표지 시각 구성요소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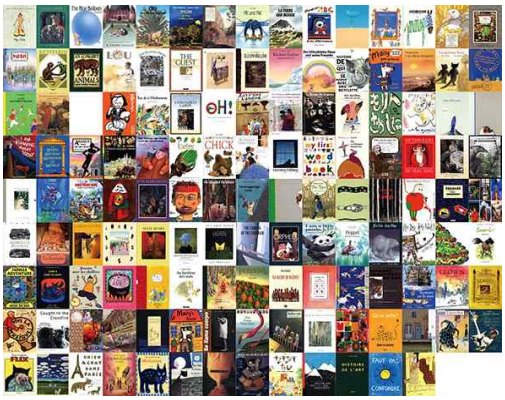
[그림 1] 1960~1970년대 표지

[그림 2] 1980년대 표지 175권

2) 김은정, 「시퀀스적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실험 그래픽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p4

3) 마리아 니콜라예바, 「그림책을 보는 눈」, 마루벌, 2011, p.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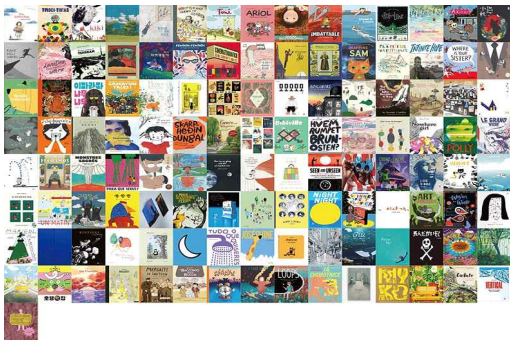
4) 박은영,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한 시퀀스 분석,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103호 Vol. 25 No. 4, p133,134



[그림 3] 1990년대 표지 132권

[그림 4] 2000년대 표지 109권

[그림 5] 2010년대 표지 181권



[그림 6] 2020년대 표지 121권

볼로냐아동도서전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1966년~1970년대는 초창기라 자국 책에서 유럽으로 수상 자격을 제한했으며 이 시기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기초학습 책들과 전통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주목받았다. 1980년대는 국제적인 참가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참가했고,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된 인권, 평화, 환경 보호와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1990년대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했으며 아동의 가정과 심리적 성장을 다룬 책들로 두려움, 용기, 자아존중 등을 다룬 책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2000년대는 전 세계 출판사들이 참여하면서 과학기술, 미래 사회, 우주 탐사 등을 주제로 한 책들과 문화와 전통을 소개한 책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2010년대는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결합한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가 주목받았으며, 2020년대는 현대적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아동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다루는 책들,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을 다루는 내용이 많았으며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기술과 리터러시를 다룬 책들이 많이 등장했다. 수상된 책표지를 이미지, 컬러, 타이포그래피로 분류해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1] 연대별 표지 일러스트 이미지 소재

연대	총 권수	자연	사람	동물	사물	일상	기타
1966~1970	188	12	59	39	6	30	40
1980	175	16	39	46	10	35	29
1990	132	4	49	43	7	19	10
2000	109	6	37	21	5	22	18
2010	181	25	67	21	11	23	35
2020	121	12	45	24	8	18	14
합계	906	75	296	194	47	147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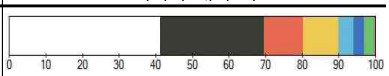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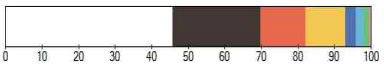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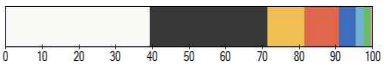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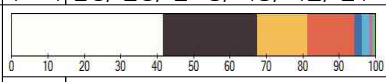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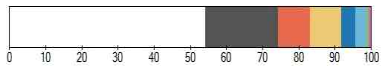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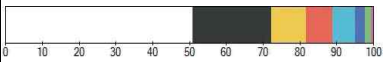
연대별 일러스트 이미지 소재로는 자연, 사람, 동물, 사물, 일상을 제외한 소재는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미지 소재로는 사람을 가장 많이 표현했다.

[표 2] 연대별 표지 이미지 표현 방식

연대	총 권수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1966~1970	188	127	31	21	3	4
1980	175	143	1	19	3	9
1990	132	121	0	7	2	2
2000	109	101	4	10	2	2
2010	181	115	12	53	0	2
2020	121	108	2	10	0	1
합계	906	715	50	120	10	20

이미지 표현 방식 분류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구상화가 가장 많아 사실적 표현과 애니메이션 구상을 포함해 구상과 추상, 그래픽 표현분류에 있어서는 래스터로 보여지는 일러스트를 그래픽, 콜라주 형태의 일러스트를 오브제, 사진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이미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구상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10년에 디지털 퍼블리싱 활성화 영향으로 모던스타일의 그래픽적 구상화가 많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표현 기법은 분석표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채화, 아크릴 기법이 가장 많았다.

[표 3] 연대별 표지 컬러 분석

연대	이미지 배색 띠	
1966~1970		
	주조색	검정, 빨강, 진노랑, 하늘, 파랑, 연두
1980		
	주조색	검정, 빨강, 진노랑, 파랑, 하늘, 연두
1990		
	주조색	검정, 빨강, 진노랑, 파랑, 하늘, 연두
2000		
	주조색	검정, 진노랑, 빨강, 파랑, 하늘, 분홍
2010		
	주조색	검정, 빨강, 진노랑, 파랑, 하늘, 연두
2020		
	주조색	검정, 진노랑, 빨강, 하늘, 파랑, 연두

연대별 표지의 컬러는 KSCA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표로 분석했다. 연도별 주조색은 검정, 빨강, 진노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하늘, 파랑, 연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대별 표지 타이포그래피 형태

연대	총 권수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1966~1970	188	63	67	19	37
1980	175	39	121	12	3
1990	132	40	65	14	13
2000	109	28	54	10	16
2010	178	85	52	9	32
2020	120	70	11	16	22
합계	902	325	370	80	123

표지 타이포그래피로는 산세리프체, 세리프체가 가장 많았으나, 특이점은 이미지 표현 방식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던스타일의 변형 장식체가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오페라 프리마 수상작에서 주로 나타나는 글 없는 그림책은 시각 구성요소가 독자에게 글이 없어도 의미가 전달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5] 연대별 표지 타이포그래피 컬러

연대	총 권수 이미지 /타이틀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1966~1970	188	114	2	24	18	13	8	7
1980	175	116	2	14	23	6	7	7
1990	132	75	1	17	22	2	8	7
2000	109	38	1	16	27	12	12	2
2010	181/178	83	1	38	24	9	17	7
2020	121/120	45	0	25	24	9	12	5
합계	906/902	471	7	134	138	51	64	35

표지 타이포그래피 컬러는 배경 컬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배경 컬러에 따라 가독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검정, 흰색, 유채색의 난색이 주로 적용되었다.

[표 6] 연대별 표지 레이아웃

연대	총 권수	이미지				타이틀		
		전체	좌측	우측	중앙	좌측	우측	중앙
1966~1970	188	103	15	11	57	19	23	144
1980	175	95	14	9	57	18	14	143
1990	132	81	3	3	45	13	7	112
2000	109	66	11	5	26	15	11	82
2010	181/178	86	14	18	64	19	18	142
2020	121/120	93	3	3	22	12	12	99
합계	906/902	524	60	49	271	96	85	722

표지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배경 전체에 배치되거나 캐릭터 중심의 이미지로 트리밍된 중앙 레이아웃이 가장 많았고, 타이포그래피의 경우도 중앙 레이아웃이 가장 많았다.

3-2. 국내 그림책 시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의미 분석

그림책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 시각 구성요소 중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를 찾아보고 시퀀스 구조 전개를 분석해 의미를 찾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2003년부터 참가했으며 연도별 장르에 따라 시각 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픽션 11권, 논픽션 8권, 오페라 프리마 5권, 뉴 호라이즌 6권 총 30권의 그림책을 분류했고 장르마다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전체를 분석했다.

[표 7] 우리나라 수상작 목록

수상 분류	제목	글	그림	출판 연도	출판사	수상 내역
픽션	마법에 걸린병	고경숙	고경숙	2005	재미마주	우수
	그리미의 하얀캔버스	이현주	이현주	2012	상	우수
	나의 작은 인형의 상자	정유미	정유미	2015	컬쳐플랫폼	우수
	눈	이보나 흐미에레브스카	이보나 흐미에레브스카	2012	창비	우수
	담	지경애	지경애	2014	반달	우수
	사과 나무밭 달님	권정생	윤미숙	2017	창비	대상
	돌로 지은 절 석굴암	김미혜	최미란	2009	웅진주니어	우수
	이빨 사냥꾼	조원희	조원희	2014	이야기꽃	대상
	엄청난 눈	박현민	박현민	2020	달그림	특별상
	여름이 온다	이수지	이수지	2021	비룡소	우수
	이사가	이지연	이지연	2022	NC소프트	우수
논픽션	지하철은 달려온다	신동준	신동준	2006	초방책방	우수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마중물	마중물	2008	여원미디어	우수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강경수	2011	시공주니어	우수
	마음의 집	보나 흐미에레브스카	이보나 흐미에레브스카	2011	창비	대상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오현경	2015	이야기꽃	우수
	커다란 손	최덕규	최덕규	2020	2020	우수
	모모모모	밤코	밤코	2019	향출판사	우수
	삼거리 양복점	안재선	안재선	2019	웅진주니어	우수
오페라 프리마	위를 봐요	정진호	정진호	2015	은나팔	우수
	털	김수영	김수영	2013	썸북스	우수
	가시산	박선미	박선미	2012	썸북스	우수
	그림자 하나	채승연	채승연	2018	반달	우수
	모이야기	최연주	최연주	2023	엣눈북스	우수
뉴 호라이즌	팥죽할멈과 호랑이	조호상	윤미숙	2005	웅진닷컴	우수
	나무 춤춘다	배우정	배우정	2016	반달	대상
	떼루떼루	박연철	박연철	2013	시공주니어	우수
	먼지 아이	정유미	정유미	2014	컬쳐플랫폼	대상
	벽	이명애	이명애	2021	키다리	우수
	할머니를 위한 자장가	보나 흐미에레브스카	보나 흐미에레브스카	2019	비룡소	우수

심층적 분석을 위해 픽션 「그리미의 하얀캔버스」, 논픽션 「지하철은 달려온다」, 오페라 프리마 「위를 봐요」, 뉴 호라이즌 「팥죽 할멈과 호랑이」 편을 정리해 보았다.

픽션 수상작 「그리미의 하얀캔버스」는 그리미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녀가 한 겨울 위험에 처한 동물 친구들을 돕는 상상 속 이야기이다. 표지부터 겨울을 상징한 배경과 주인공 그리미,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이미지를 반복했으며 크기의 대비를 이루며 전개되고 있다. 컬러는 겨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주인공의 모자 빨간색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그림책의 구조화가 됨을 볼 수 있다.

[그림 7] 그리미의 하얀캔버스

[표 8] '그리미의 하얀밴버스'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년도	출판사	판형(mm)	수상내역
	이현주	이현주	2012	상출판사	구격변형 243*300	픽션 우수상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		
타이포그래피						●	

표지 타이포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	
타이포그래피			●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	●		●
컬러	●	●		
타이포그래피		●		

[표 9] 픽션 수상작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픽션(10권)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8	1	1	0	0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2	0	0	0	2	4	2
타이포그래피	4	0	1	0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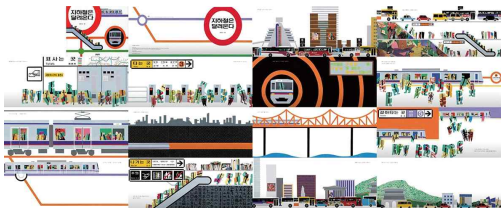
표지 타이포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2	4	0	4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2	0	5	3
타이포그래피	0	4	5	1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4	8	1	4
컬러	5	6	0	3
타이포그래피	7	3	0	0

픽션 수상작 전체 분석을 보면 표지의 이미지는 구상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컬러는 중성색이 사용되었다.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는 중앙 레이아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미지의 시퀀스는 이미지, 컬러, 타이포그래피가 반복성을 가지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픽션 수상작 「지하철은 달려온다」는 현대 사회의 일상과 소중한 가치를 3호선 지하철을 배경으로 다룬 그림책이다. 표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의 안내표지판을 모티브로 한 직선, 원의 그래픽요소를 사용했고 중간의 지하철표를 의인화된 이미지가 반복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3호선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검정을 대비시켜 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며 그림책의 구조화됨을 볼 수 있다.



[그림 8] 지하철은 달려온다

[표 10] '지하철은 달려온다'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년도	출판사	판형(mm)	수상내역
	신동준	신동준	2006	초방책방	A6 240*290	논픽션 우수상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
타이포그래피	●						

표지 타이포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			
타이포그래피				●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		●
컬러		●		●
타이포그래피	●			

[표 11] 논픽션 수상작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논픽션(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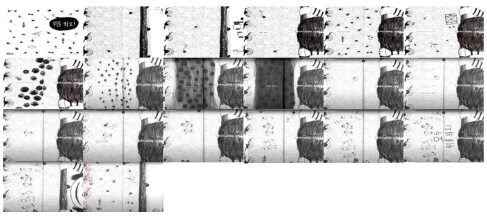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5	1	2	1	0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1	0	0	0	1	5	2
타이포 그래피	7	0	0	2	0	0	0

표지 타이포 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3	4	0	2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3	0	3	3
타이포 그래피	0	4	4	1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0	9	1	6
컬러	5	5	1	2
타이포 그래피	4	1	1	1

논픽션 수상작 표지의 이미지는 구상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컬러는 중성색이 사용되었다. 타이포그래피는 검정으로 중앙과 우측 레이아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미지의 시퀀스는 이미지, 컬러, 타이포그래피가 반복성과 대비를 가지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페라 프리마는 「위를 봐요」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집에만 있는 주인공이 매일매일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일상을 담고 있다. 묵묵히 내려다본 일상의 모습과 주인공의 머리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페이지마다 통일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을 극대화하며 끌고 가고 있다. 컬러는 무채색으로 표현해 통일성 있게 갔고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묵묵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위를 봐요'라는 주인공의 소리를 타이포그래피로 통일성 있게 표현해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9] 위를 봐요

[표 12] '위를 봐요'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글작가	그림 작가	출판 년도	출판사	판형 (mm)	수상 내역
정진호	정진호	2015	은나팔	규격 변형 175*300	오페라 프리마 우수상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						
타이포 그래피			●				

표지 타이포 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	
타이포 그래피			●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	●		●
컬러	●			
타이포 그래피	●			

[표 13] 오페라 프리마 수상작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오페라 프리마(5권)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2	3	0	0	0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3	0	0	0	0	1	1
타이포 그래피	1	0	1	0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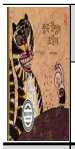
표지 타이포 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1	0	1	1
레이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1	1	2	1
타이포 그래피	0	0	2	1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2	3	2	3
컬러	5	2	0	0
타이포 그래피	2	0	1	0

오페라 프리마 수상작에 있어서는 「위를 봐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글 없이 이미지로만 독자를 끌고 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미지는 추상화 표현과 컬러는 무채색인 검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미지, 컬러가 반복성을 가지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뉴 호라이즌 수상작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지혜와 용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이다. 표지에서 호랑이와 할멈의 캐릭터를 크게 대비시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고, 내지에서는 캐릭터 이미지가 반복하면서 끌고 가다 다시 호랑이의 대비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극대화하며 시퀀스 되고 있다. 컬러에서는 검정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중간중간 원색을 사용해 변화를 주며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0] 팥죽할멈과 호랑이

[표 14] '팥죽할멈과 호랑이'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글작가	그림 작가	출판 년도	출판사	판형 (mm)	수상 내역
	조호상	윤미숙	2005	웅진 닷컴	규격 변형 220*280	픽션 우수상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			●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	
타이포 그래피	●						

표지 타이포 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		
레이 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
타이포 그래피		●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		●
컬러				●
타이포 그래피	●			

[표 15] 뉴 호라이즌 수상작 시각 구성요소와 시퀀스 분석

뉴 호라이즌(6권)							
표지 이미지	구상	추상	그래픽	오브제	사진		
	1	1	2	2	0		
표지 컬러	무채색			유채색			다색
	검정	회색	흰색	난색	한색	중성색	유채색
이미지	1	0	0	2	0	2	1
타이포 그래피	3	0	0	0	0	2	1

표지 타이포 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Serif (명조체)	Script (필기체)	Disply (장식체)
표지	5	1	0	0
레이 아웃	전체	우측	중앙	좌측
이미지	1	2	2	1
타이포 그래피	0	2	2	2
시퀀스	통일성	반복성	다양성	대비성
이미지	2	2	2	4
컬러	1	0	2	2
타이포 그래피	1	0	3	0

뉴 호라이즌 수상작 표지의 이미지는 그래픽과 오브제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컬러는 중성색이 사용되었다. 타이포그래피는 검정으로 중앙과 우측 레이아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미지, 컬러, 타이포그래피가 반복성과 대비를 가지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 연대별 표지 시각 구성요소 분석 소결

연대별 전체 총 906권 시각 구성요소인 이미지를 정리하면 일러스트 소재는 사람 296, 동물 194, 일상 147, 자연 75, 사물 47의 순으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미지 표현 방식은 구상 715, 그래픽 120, 추상 50, 사진 20 오브제 10의 순으로 구상표현이 가장 많았다. 컬러는 검정, 빨강, 진노랑, 하늘, 파랑, 연두 순으로 검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966년~2020년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글 없는 동화를 제외하고 총 902권 중 Serif(명조체) 370, Sans-Serif(고딕체) 325, 장식체 123, 필기체 80 순으로 Serif(명조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타이포그래피 컬러는 검정 471, 난색 138, 흰색 134, 중성색 64, 한색 51, 유채색 35, 회색 7 순으로 검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미지 레이아웃은 전체 524, 중앙 271, 좌측 60, 우측 49 순으로 배경을 전체로 사용한 레이아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타이틀 레이아웃은 중앙 722, 좌측 96, 우측 85 순으로 중앙 레이아웃이 가장 많았다.

3-3. 국내 그림책 시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의미 분석 소결

시각 구성요소에 의한 시퀀스 의미 분석은 우리나라 수상작 30권을 중에 픽션 수상작 이미지 표현 방식 구상 8, 이미지 컬러 중성색 4, 타이포그래피 컬러 검정 4, 타이포그래피 Serif(명조체) 4, 레이아웃은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중앙 5, 시퀀스 전개는 이미지 반복성 8, 컬러 반복성 6으로 나타났다.

논픽션 수상작 이미지 표현 방식 구상 5, 이미지 컬러 중성색 5, 타이포그래피 컬러 검정 7, 타이포그래피 Serif(명조체) 4, 이미지 레이아웃은 전체 3, 중앙 3, 좌측 3,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은 우측 4, 중앙 4, 시퀀스 전개는 이미지 반복성 9, 컬러 반복성 5로 나타났다.

오페라 프리마 수상작 이미지 표현 방식 추상 3, 이미지 컬러 검정 3, 타이포그래피 검정 1, 중성색 1, 타이포그래피 Sans-Serif(고딕체) 1, 필기체1, 장식체1, 레이아웃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중앙 2, 시퀀스 전개 이미지 반복성 3, 대비성 3로 나타났다.

뉴 호라이즌 수상작 이미지 그래픽과 오브제 2, 이미지 컬러 난색과 중성색 2, 타이포그래피 컬러 검정과 중성색 3, 타이포그래피 Sans-Serif (고딕체) 5, 이미지 레이아웃 우측과 중앙 2,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우측, 중앙과 좌측 2, 시퀀스 전개에서는 이미지 대비성 4, 컬러 다양성 2, 대비성 2, 타이포그래피 다양성 3으로 나타났다.

픽션과 논픽션에서는 구상화와 Serif(명조체)가 오페라 프리마, 뉴 호라이즌 추상화와 Sans-Serif(고딕체)로 상의 특징에 따라 시각 구성요소가 사용됨을 살펴볼 수 있다. 컬러는 중성색과 검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의 먹선과 무채색의 컬러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했으며 시퀀스 전개는 이미지와 컬러가 반복성을 가지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를 시각 구성요소가 시퀀스 되어 이야기 전개의 단서를 제공하고 다음 페이지를 궁금하게 하는 의미로 그림책에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은 세상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므로 책으로 정보전달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이미지는 구상화와 컬러는 검정과 난색, 타이포그래피는 Serif(명조체)를 레이아웃은 중앙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각 구성요소로 정확한 시각적 의미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오페라 프리마, 뉴 호라이즌 상은 신진 작가나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데 파격적인 레이아웃을 통해 대비와 반복의 연속성을 가지며 독자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 그림책의 구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가가 그림책을 통해 독자와 커뮤케이션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대가 급격히 변한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나,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을 향해 꿈, 희망, 도전, 용기 등 작가의 메시지 의미를 가장 안정적인 시각적 언어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의 미래를 끌고 갈 신진 작가들의 도전을 통해 미래의 그림책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그림책 시퀀스 의미 연구'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나와 세상,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각 구성요소를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독자로 하여금 그림책의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기반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유동관, 『그림보고 그림읽기』, 미진사, 2005
2. 마리아 니톨라예바 『그리책을 보는 눈』, 마루벌, 2011
3. 박은영,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한 시퀀스 분석',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103호 Vol. 25 No. 4
4. 김은정, '시퀀스적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실험 그래픽 표현연구', 2010
5. 김정열, 최인영, '그림책 표지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례 분석'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Vol.55
6. 김정준, 신원애 『그림책에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의미 분석』, 육아지원연구 제11권 제3호
7. 박혜원, 엄기준 '성장소설 표지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의미패턴 연구',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28호, 2023. Vol.8 No.3
8. www.bibliotecasalaborsa.it, 2024
9. brunch.co.kr. 2024